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군에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도록 이끄신 현명한 령도

박 영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관병일치는 말그대로 지휘관과 병사가 혁명동지로서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기풍입니다.》(《김정일선집》 제16권 중보판 56페이지)

전군에 관병일치를 실현하여 그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변함없는 뜻이고 확고한 의지였다.

전군에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관병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가을과 주체87(1998)년 4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시여 관병관계를 개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지휘관들이 전사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다같은 피줄을 타고난 제급적형제이며 한 전호속에서 생사를 같이해야 할 혁명전우이고 동지들이라고, 관병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애병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전사들은 지휘관을 자연히 믿고 따르게 될것이라고, 진실만이 전사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마음을 끌어당길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관병관계해결의 기본방도는 무엇이며 관병관계에서 기본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지침이

였다.

내리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세계최고장기수로 세상에 알려진 비전향장기수 김선명동지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는 의용군에 입대하여 인민군대에서 1년밖에 복무하지 못하였다. 그런 그가 기자회견을 할 때 44년이상이라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어떻게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워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그 요인의 하나가 옛 중대장의 사랑이였다고 이야기하여 회견석상을 놀래웠다. 그는 자기가 입대하여 중대장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감옥에서 참을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자기를 끔찍이 위해주던 중대장을 생각하며 참았고 절개와 지조를 지켰다, 인민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중대장처럼 남을 위해서라면 제 한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회, 그런 사람을 어찌 배반할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김선명동지의 체험이 보여주는것처럼 관병일치는 복종관계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사상감정의 일치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자면 지휘관과 병사들사이에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혈육의 정이 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기본은 내리사랑이다. 진정한 내리사랑만이 올리사랑을 불러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관병관계개선의 원칙적문제들은 인민군대안의 모든 지휘관들이 군인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며 병사들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였다.

전군에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지휘관들이 뜨거운 인정미와 인간성을 가지고 전사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관병일치를 보장하는데서 기본고리가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위하고 아끼는데 있다는것을 거듭 일깨워주시면서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이 군인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이 병실과 주위환경을 잘 꾸려 전사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병사생활을 보람차게 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위환경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생문화적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는 한편 특히 이동전개하는 관하부대, 군부대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군인들의 병실부터 먼저 지어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은 군인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병실을 비롯한 주위환경을 훌륭히 꾸려 병사들이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게 온갖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병실은 물론 군인들의 문화휴식터와 취사장, 식당, 창고 등 후방기지와 생활환경을 훌륭히 꾸려놓아 군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군무생활을 락천적으로 운택하게 할수 있게 되었다.

주체86(1997)년 11월 세찬 바람과 진눈까비를 맞으시며 조선인민군 한 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실부터 들리시여 병실안의 온도는 얼마이며 난방은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물으시고 방바닥까지 끌고루 짚어보시면서 병실을 아주 잘 꾸렸다고, 군인들이 따뜻한 병실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며 상학도 하게 하였는데 아주 잘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실과 주위환경을 잘 꾸려 군인들이 보람찬 군무생활을 하게 하시는 한편 인민군지휘성원들이 군인들의 식생활과 입는 문제에 관심을 두며 더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명량하고 락천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지휘관들의 깊은 관심속에 군인들의 식탁에 오를 간장과 소금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들이 입고 쓰는 군복과 신발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병사들이 음악감상과 예술소조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게 각종 문화기재가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인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명량하고 락천적이며 전투적인 군무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지휘관과 병사들사이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동지적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병사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시였다.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는데서 중요한것은 병사들속에 들어가 군무도 함께 서면서 그들의 애로를 늘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는것이다.

주체86(1997)년 11월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담화를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늘 전사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리해하여주고 애로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중대장이나 중대정치지도원, 소대장들도 계획적으로 전사들과 함께 군무를 서보아야 한다고, 인민군대에서 관병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적으로 관병일치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토의사업이 조직별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병일치의 미풍이 높이 발양되었다.

오늘 인민군대안의 모든 지휘관, 정치일군들은 병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근무도 같이 서면서 그들의 애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고있으며 병사배낭을 메고 전사들과 훈련길에서 땀을 같이 흘리면서 절벽도 뚫아오르고 강물도 헤치며 생사를 같이하고있다. 그리고 훈련의 휴식참에 장령이 전사와 함께 쌍피리도 불며 팔씨름도 하고 전사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하는것은 어느 부대, 어느 초소에서나 흔히 보게 되는 평범한 현상으로 되었다.

이런 과정에 훈련도중 병사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하고 최후를 마친 지휘관도 나왔으며 량부모를 잃고 고향에서 홀로 지내는 병사의 나 어린 동생을 데려다 그들의 친부모가 되어준 정치일군도 나왔으며 중병으로 더는 어쩔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병사를 자기 집에 데려다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회복시켜 다시 초소에 세워준 지휘관들도 수없이 나왔다.

이러한 속에서 지휘관과 전사들사이의 혈연적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전군에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관병일치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을 전군에 본보기로 내세우고 일반화하도록 하신것이다.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아끼고 위해주는 소행을 전군의 본보기로 내세워주는것은 관병일치를 새로운 높이로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군인들의 식생활개선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병사들과의 혈육의 정

을 더욱 두터이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병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고 지휘관과 그 안해들이 하루씩 말아 군인들의 식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었으며 부대정치위원이 맡은 날이면 정치위원과 그의 안해가 병사들의 친부모가 되어 푸짐한 식탁을 차려주곤 하였다.

주체86(1997)년 9월 오중흡7련대청호쟁취를 위한 관정검열을 받고있는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부대에서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정형을 료해하시고 군인가족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년째 매일 교대제로 군인들의 식생활을 돌봐주며 병사들간의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병사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자신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할줄 아는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가족들의 소행을 전군에 널리 소개하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과정에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에서 병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고 매일 교대제로 점심 한끼를 자체로 준비한 부식물을 가지고 나와 군인들의 식생활을 성의껏 돌보아주는 미풍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졌다. 한편 인민군대안의 지휘관들과 그의 안해들은 다심한 심정으로 집집승을 키워 군인들에게 공급하였으며 남새온실과 부엌밭을 잘 가꾸어 군인들에게 신선한 남새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러다보니 군인들은 언제나 고향집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었고 매일 명절을 맞는 기분이였다.

이 과정에 지휘관과 병사들간에 혈육의정이 더 깊어지고 관병일치의 미풍이 보다 높이 발휘되어 부대의 전투력은 비할

바없이 강화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전사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킨 지휘관의 영웅적희생정신을 전군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주체87(1998)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대원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김광철영웅이 복무하던 중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대교양실에 진렬된 영웅의 학습장과 수첩들을 보아주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였다면 김광철영웅은 귀중한 혁명동지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고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리수복, 김광철영웅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은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동지애의 발현으로서 항일혁명투사들의 넋을 이어받은 우리 군대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풍모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속에서 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인민군대안에서는 김광철영웅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아끼고 위해주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으며 전사들은 지휘관을 존경하고 따르며 지휘관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견결한 희생정신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안의 모든 지휘관들과 전사들사이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로 더욱 승화되고 그 위력은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지휘관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전사들을 따듯이 교양하고 이끌어주고있으며 군사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서 어깨를 들이대고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전사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이런 이신작칙의 기풍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어려운 물길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부대와 군부대들에서는 김혁청년돌격대,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명칭을 띤 돌격대를 못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그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군관돌격대, 정치일군돌격대, 기술일군돌격대와 같이 순수 군관들로 무어진 돌격대와 결사대들이였다. 군관들은 이런 돌격대와 결사대를 못하고 갯안에 들어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병사들의 앞장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지휘관들속에서 발휘된 이렇듯 숭고한 투쟁정신과 미풍은 모든 전사들로 하여금 지휘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지휘관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목숨도 다 바치는 견결한 희생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였다.

주체88(1999)년 6월 서해해상전투에서 인민군전사들은 자기 지휘관을 어떻게 받들고 대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서해해상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안을 세운 남조선피뢰군 우두머리들은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수행하고있는 우리 해군함정에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인민군해병들은 지휘관과 일심동체가 되어 강력한 타격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반공격으로 이행하였다.

적탄이 비발치는 정황속에서도 우리 해병들은 지휘관에게로 날아오는 적탄을 한몸그대로 막아 전투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하였다.

치열한 격전속에서 지휘관의 철갑모가

날아나자 한 병사는 자기는 적탄에 맞아 중상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철갑모를 벗어 지휘관에게 씌워주었다.

지휘관들과 병사들모두가 이런 희생정신과 혁명적동지애로 적들에게 참패를 안기고 인민군대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휘관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군인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

로 복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관병일치의 미풍은 선군시대에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활짝 꽃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군에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